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1월

선교편지 제 9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꿈과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새로운 선교지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귀한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공동 묘지'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 이곳의 교통 수단인 '트라이시클'을 타려면 이곳 공동 묘지를 통과해야 정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위클리프 사역을 하고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도 공동 묘지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게이트를 지나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공동 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나 다니며 자연스럽게 묘비의 글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 나보다 빨리 떠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9년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훨씬 더 많이 참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장례식과 같은 큰 일에는 비록 타국에서 온 이방인이지만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새삼 깨닫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자연사를 하기 보다는 '병과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도 디고스 예일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의 39세된 며느리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석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17년을 계획하며 준비하기 위하여 작년 말부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과, 또한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들의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는 '피치 조이'이 아버지가 그러 했습니다. 장학생인 '조이'와 어머니는 교회에 잘 나오지만, 아버지는 볼 기회가 없었던 까닭에 쌀을 가지고 집으로 심방을 갔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교회에서 또 보기로 약속하고 헤어 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 68:20)**

지난 9년동안 감당했던 사역을 돌이켜 보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집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치중했었던 같습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소그룹 형태로 제자 훈련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 (Mobilization)'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7)는 말씀에 따라, 가능하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 복음 전파 방식이 매우 귀하지만, 전체를 볼 수는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밀물처럼 와서 복음을 듣고,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또 다시 원점에서 이러한 사역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마 4:19)를 만드는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10)**

디고스 예일 교회가 설립된지 일년 반이 지나고, 헛 수로는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에 힘 입어서, 설립 초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큰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교회를 찾는 현지인들의 수가 많이 증가해서, 얼굴과 이름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물론이고, 주변 마을에서도 '디고스 예일 교회' 이름만으로 충분히 소개가 될 정도로 지명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는 현지인들도 많아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 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맞이해서 사역의 중심을 '전체'에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13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집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아직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결단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로 새해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서나 특정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남, 녀로 구분하여 좀 더 강한(?) 제자 훈련을 매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장학생 그룹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와는 달리, '훈련'에 치중한 성경 공부를 지원자에 한하여 두 그룹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전교우가 성경 1독을 위하여 매 주일 아침마다 한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복음의 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생활해 왔었는데, 선교사들이 정착 초기에 겪는 여러가지 질병 (풍토병)들을 뒤늦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려 시름 시름 앓는 횡수가 늘어나고, 이 무더운 곳에서 한기로 인하여 이불뿐만 아니라 긴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피붓병’이 생겨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위를 긁고 있습니다. 각종 피부 연고를 바르고, 현지인들이 알려준 민간 요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는 강력한 ‘미제’ 연고를 찾아 내어 많은 차도가 있지만, 아직도 피붓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부터 ‘안과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붓는 증상으로 일주일에 한, 두번씩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안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공기중에 섞여있는 먼지와 연기등과 같은 이물질로 인한 ‘알러지’ 일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책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전 정착한 선교사들에 의하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겪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견뎌 왔었는데, 부실한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2017년에도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